

지금 규슈에서는

‘친환경’ 벨로택시 타고 도시 풍경 여유롭게 감상해요

2005년 독일서 7대 들여와 운행
평균 시속 11km 근거리 이동 적합
아이들 학원 등 보낼 때 이용 각광
거동 어려운 노인에게도 다리 역할
관광객엔 ‘이야기 벨로택시’ 인기

어르신의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학원 가는 어린이를 지켜주고, 박식한 관광가이드도 되어주는 만능 일꾼이 있다.

어른 두 사람 쬐은 거뜬히 짊어지는 이 일꾼은 바로 ‘벨로택시(Velo Taxi)’이다. 벨로는 라틴어로 자전거를 의미한다. 1997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등장한 벨로택시는 계란을 옆으로 눕힌 듯한 모양의 세발자전거 택시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벨로택시가 일본 후쿠오카 시에 선보인 것은 지난 2005년의 일이다. “신문에서 벨로택시를 소개하는 기사를 봤어요. 후쿠오카의 거리에도 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벨로택시 후쿠오카’를 운영하는 NPO법인 토터스환경도시교육연구소 미노루 나라자키 대표는 바로 기사에 나온 교토로 날아갔다.

반년 후 독일에서 벨로택시 7대가 도착했다. 대당 가격이 약 100만 엔(약 1천20만 원) 이상으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비싸다’는 반응을 보인다. 미노루 대표는 “자전거라 생각하면 비싸지만 자동차에 가까운 교통수단으로의 기능을 고려하면 비싼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 만들면 3~4배 더 비싸진다”고 설명했다.

2002년 교토를 시작으로 도쿄, 삿포로, 오키나와 등 일본 20여개 도시에 벨로택시가 보급됐다. 근거리 이동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입된 것이지만 주로 관광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평균 시속 11km로 바람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도시



관광객들에게 지역 관광명소를 안내하고 있는 벨로택시(왼쪽)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복장을 한 벨로택시 운전기사들.



벨로택시 후쿠오카 제공

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정이었던 후쿠오카 벨로택시의 새로운 사용법에 주목한 것은 엄마들이다.

안이 들여다보이는 개방된 공간과 적당히 느린 속도,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운전사 등 벨로택시는 아이들이 보육원이나 학원을 오갈 때 딱 맞는 교통수단이었다. 어린이 전세 벨로택시는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미노루 대표는 “한창 때는 1년에 어린이만 5천 명이 탈 정도로 예약이 넘쳐서 관광객은 아예 탑승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어린이에 이어 노인 고객들도 벨로택시를 찾았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가까운 병원을 갈 때, 쇼핑 후 무거운 짐을 들고 집에 돌아가기 힘들 때도 벨로택시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었다.

시내 도진마치 상점가의 빈 점포에 벨로택시 탑승장을 만들어 구매난민(상품을 사러 나오기 힘든 사람들)과 지역상권 침체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아기가 있는 엄마나 휠체어 이용자 등 노약자를 위해 안전한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킴이 벨로택시’로 불린다.

벨로택시는 관광업에서도 한몫을 한다. 관광지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벨로택시 운전사들이 역사나 문화 등 관광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후쿠오카 시와 손잡고 2011년부터 실시 중인 이 사업은 ‘이야기 벨로택시’이다. 시가 개설한 관광안내인양성교육에 참가한 운전사들은 ‘달리는 관광가이드’ 역할

도 겸하게 됐다. 단순 이동의 경우 요금이 30분에 700엔(약 7천200원)이지만 이야기 벨로택시의 경우는 1시간 코스가 2천500엔(약 2만 5천 원)이다.

계절이나 지역축제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성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봄꽃 구경, 여름 축제 하카다기온아마카사 전시장 순회, 연말 일루미네이션, 웨딩 벨로택시 등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반응이 좋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후지카와 유미 씨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벨로택시 4대를 빌려 어린이들에게 일루미네이션 투어를 시킬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세 번 정도 이용했는데 벨로택시로 거리를 달리면 다들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다.

벨로택시 후쿠오카는 지난 10월 후쿠오카에서

열린 세계해비타트2013국제워크숍에서 지난 8년간의 활동 보고회를 가졌다. 자전거 택시의 역사가 긴 동남아시아의 전문가들도 공개요금제, 안전성 확보, 다양한 고객층 개발 등 지역민의 교통수단으로 거듭난 후쿠오카 벨로택시의 체계적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미노루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대형주차장 인근에 벨로택시 탑승장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외곽에 자동차를 세우고 복잡한 시내 중심가까지는 벨로택시를 이용하는 ‘파크 앤 벨로(Park and Velo)’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후쿠오카시는 한층 쾌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후쿠오카=오금 기자 chris@busan.com